시 조현아

거리두기

이리저리 피해
산길을 오른다
간벌하는 기계 소리가
산천을 흔든다
무참히 잘려 나간 잡목들
어우러져 살아온 삶이
톱니바퀴에서 넘어진다
잘려진 가지에서 붉은 수액이 흐른다
목까지 감아 오르는 너와의 거리
나무와 나무 사이
우리 마음과 마음
참으로 어려운 적당한 거리

약력

▲ 수상 : 문학춘추 시부분 작품상 수상, 우송문학상 수상
▲ 저서 : '너도 바람꽃', '한 묶음의 수선화'

평설

조현아 님의 시 '거리두기'에서의 시적 화자는 간벌하는 모습을 보며 사색에 잠긴다. 간벌은 빽빽하게 자라 있는 나무를 솎아 간격을 듬성듬성하게 하는 일이다. 적당한 간격을 두어야 나무의 성장이 활발하다. 간벌하느라 기계 소리가 요란하다. 시적 화자는 잘려 나간 잡목들을 보며 가슴 아파한다. 그 지점에서 시적 화자는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에 대해서 생각한다. 간격이 없이 너무 가까워 얽히고설키면 나의 아픔을 상대방은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웃어넘길 수 있다. 겨울과 봄의 간격이 없다면 모를 심을 때 눈이 내려 농사를 망칠 것이다. 동쪽과 서쪽의 간격이 없다면 해가 뜨자마자 질 것이다. 슬금슬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의 간격,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간격, 나에게서 당신에게로 다가갈 수 있을 만큼의 간격, 그 간격이 있어야 한다. 그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춥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입기 쉽다. 시적 화자는 상처 입기 쉬운 관계에서의 거리를 '목까지 감아 오르는 너와의 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다. 목까지 감아 올라오면 손발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숨쉬기도 쉽지 않다. 나의 의지대로 나의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조여오는 목조임에 버둥거려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당신과 나 사이에 빈틈 하나 없는 참 무서운 간격이다. 나무와 나무의 간격처럼 마음과 마음의 적당한 간격도 반드시 필요하다. 간벌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사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눈매가 매섭다.

시 오소후

무슨 힘으로

꽃잎을 열어 보이는가
저 등불, 수련꽃
태양을 만나려는 갈망이었을까
무슨 힘으로 꽃잎을 접고 잠기는가
저 봉긋한 젖꼭지, 꽃대롱
물속에 두고 온 어미를 사칭하는가
저 수련꽃 한 송이
지극히 바라보았는데
할, 꽃이 피고 지는
그 경지
이치가 거기 있다

약력

▲ 무등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2001)
▲ 시집 : '좀꽃마리', '스미다', '한 점 블루', '나의 슈바빙 나와 걷기', '에릭 샤티와'

평설

오소후 님의 시 '무슨 힘으로'에서의 시적 화자는 무슨 힘으로 꽃잎을 열어 보이는가라고 묻고 있다. 시는 삶에 대해 건강한 성찰을 해야 한다. 활짝 핀 꽃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에 앞서, 무슨 힘으로 꽃은 피어나는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시는 보다 근원적인 꽃의 탄생을 읽어내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 수련꽃은 태양을 만나고 싶어 꽃잎을 연 것일까. 그 간절함이 지극해 꽃을 피웠던 것일까. 수련 꽃잎에 내려앉은 햇살의 수다가 반짝거린다. 반가운 햇살과 간절한 수련꽃의 수다가 꽃빛을 빚은 것일까. 수련꽃의 그 갈망이 절절했기에 섬광처럼 희게 피어난 것일까. 시적 화자는 또다시 묻는다. 무슨 힘으로 수련꽃의 꽃잎을 접게 하고 잠기게 할까. '저 봉긋한 젖꼭지, 꽃대롱 / 물속에 두고 온 어미를 사칭하는가'라며 꽃잎을 접게 한 힘에 대해 에둘러 말하고 있다. 수련꽃은 지지만 꽃잎의 간절한 내력을 기억한 물속의 어미는 다시 수련꽃을 피울 것이다. 가느다란 한 줄기 꽃대궁을 밀어 올리며 햇살과의 수다를 꽃잎에 받아 적을 것이다. 수련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시적 화자는 이치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꽃이 그냥 피는 게 하니라 어떤 갈망이 있어 피어나듯이, 우리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는지 묻고 있는 듯하다. 수련꽃을 통해 여러 사색의 길을 열어 주고 안내하는 시적 화자, 해석의 다양성도 배치해 놓고 있어, 애매성의 이론도 적용되고 있다. 다채롭게 해석하는 영역까지 개척해내고 있어, 싱그럽다.

시 임해원

꽉 찬 고요

딴전 부리듯
와불님 귓속에 들어앉아 가부좌를 틀 것
절간 녹 슬은 구리종이 기억하는 벽력일 것
가슴이 온통
아무것도 아닌 것일 것
막무가내로 번지는 노을일 것
눈개승마가 기억하는 아지랑이일 것
그리하여
꽉 다문 입
무슨 말도 깜깜 들리지 않는
꼭두서니빛
먼 밤하늘까지 덮어씌울 것

약력

▲ 무등일보 신춘문예 시 등단

평설

임해원 님의 시 '꽉 찬 고요'에서의 시적 화자는 고요에 대해 시적 형상화를 해놓고 있다. 그것도 꽉 찬 고요란 어떤 세계일까. 딴전 부리듯 와불의 귓속에 들어앉아 가부좌 트는 것, 절간의 녹슨 구리종이 기억하는 벽력, 가슴이 온통 아무것도 아닌 것, 막무가내로 번지는 노을, 장미과 풀인 눈개승마가 기억하는 아지랑이라고 말한다. '절간 녹 슬은 구리종이 기억하는 벽력'이라는 표현이 참 멋지다. 매우 크고 우렁찬 구리종의 소리와 그 소리를 기억하는 고요가 맞물리면서 깊이가 느껴진다. 우렁우렁 산허리를 돌고 돌아 뭇 생명들에게 설법하듯 뎅뎅 울렸을 구리종이 이제는 동안거에 들어간 스님처럼 가부좌를 틀고 있는 듯하다. 시적 화자는 꽉 찬 고요는 꽉 다문 입이라고 말한다. 고요는 밖의 소란스러움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침묵으로 다독거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꼭두서니 빛으로 먼 밤하늘까지 덮어씌우는 것이다. 문득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언어는 고요인 듯싶다. 이 시는 고요를 다양한 각도의 이미지로 구현해 놓고 있다. 낯설게 하기와 새로운 해석이 시를 감칠맛 나게 해주고 있다. 새로운 각도로 사물을 보고, 이미지로 그려내는 작업, 이게 시를 돋보이게 하고, 시의 특질을 갖추게 하는 작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신선한 표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수필 소묘란

가을 청평사

바람 끝에 풀잎이 먼저 드러눕고 담쟁이넝쿨이 푸른 빛을 잃어갈 즈음 마음이 먼저 계절을 탄다. 삶의 의욕이 옅어지고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치밀고 오면 앞뒤 잴 것 없이 길을 나선다. 가을에 떠나는 여행지 중, 나는 단연 청평사 가는 길을 좋아한다. 자연을 보며 자연과 하나 되고 싶어 떠나는 여행, 그때는 혼자 떠나는 것이 더 좋다. 날로 변해가는 계절에 잠시 지체하다 행여 발길 묶일까 서두르게 되는 여행길은 설렘 그 자체다.

청평사 가는 길. 경춘선 기차를 타고 두어 시간을 달리노라면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광은 매번 지나칠 때마다 눈을 즐겁게 한다. 마석역을 지나 천마산을 바라보니 지난날 친구들과 올랐던 산행의 추억이 떠올랐다. 눈 덮인 산에서 추위에 떨며 먹었던 점심 그때의 김치 맛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지금 생각하니 밥과 김치가 전부였던 것 같다. 그때의 소녀는 간 곳 없다.

춘천에서 내려 소양호에서 배를 타니 잔잔한 호수를 가로지르며 산사로 가는 뱃길은 여행객의 들뜬 마음을 다잡아 준다.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 또한 현재로 달음질쳐 오는 시점에서 어느 것이 과거이고, 어느 것이 미래일까. 하지만 굳이 그 길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되짚어 보게 되는 것 또한 청평사 가는 길에서 느끼게 되는 묘미다.

호수를 건너 청평사 선착장에 내리면 그때부터 청평사의 숲길이 열린다. 오색으로 물든 가을 산을 쉼 없이 걷노라면 숨이 차오르는 지점에 이르러 작은 연못이 눈에 들어선다.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앞에 서니 해 질녘 경운산 산 그림자를 담고 있는 영지影地에서 물속에 잠긴 달을 보며 풍류를 즐겼을 선인들의 모습이 선하다. 꽃구경은 가인과 마주해야 마땅하고, 달빛에 취함은 운치 있는 사람과 마주해야 좋다고 하였는데 옛 어른들은 영지에서 그 어떤 이들과 즐겼을까. 풍류남아들이었다면 그 곁에 가인은 없었을 것인가 싶어 괜한 호기심에 발길이 멈추고 만다. 산다는 것은 앞서간 이들의 흔적을 밟으며 물으며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아름다운 정경 속에 살았던 선인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며 아쉬움은 없었을 것인가. 천년의 세월을 지키고 있는 영지는 무심히 경운산만을 바라보고 있다.

연못을 지나 산사에 이르니 회전문이 눈에 띈다. 전설에는 당나라 평양공주를 사랑한 상사뱀이 공주를 휘감고 있었는데 가사 불사의 공덕으로 상사뱀을 떼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공주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상사뱀은 공주를 찾아 절 안으로 들어가려다 뇌성벽력을 맞고 쏟아지는 소나기에 밀려 그 문을 나오게 되었다는 회전문, 이루지 못한 사랑의 전설 때문인지 회전문 밖에서는 상사뱀의 비애가 궂은날 계곡을 타고 몸부림을 치는 듯하여 으스스함마저 느껴졌다. 이루지 못하고 전설로 남겨진 사랑 이야기, 그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가르침은 아닐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공주를 괴롭혀온 상사뱀이나, 일방적인 집착으로 스토커가 되어 사랑하는 이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사랑, 그것은 욕심이 부른 화禍가 아니었을까. 욕심 내지 말고 가슴에 묻었다면 좋았을 아름다운 사랑도 구구절절 사랑의 이야기들이 난무하면서 사랑이란 단어조차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회전문 앞에 서니 사랑한다던 내 마음도 지레 움츠러든다.

가을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함이 곳곳에 깃들어 있다. 아픔을 삭여가며 찬란함을 과시하는 계절에 그리워하는 순간만이라도 가슴을 온전히 따뜻하게 하는 사랑 하나 간직하고 여행을 떠나자.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야 있든 없든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세상 모든 것이 여유롭고 사랑스럽지 아니한가.

가을에는 바람 끝에 묻어나는 아픔은 접고 마음은 늦가을처럼 비우고 욕심 조금 내려놓고 지나간 세월 한 자락 펼쳐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을 더듬으며 추억을 곰삭아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어디쯤에선가 함께 즐거워했던 시간도 있었을 터 그 시간에 잠시 머물러 보자.

낙엽이 지는 때, 수선스럽지 아니하고 화려하지 않아 금방이라도 묻혀 버릴 것 같은 애잔한 사랑 하나 묻어두고 나 하나의 사랑을 노래해도 좋을 것 같아 찾아가는 곳. 그곳은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이 수면 위에 곱게 수놓고 다소곳한 경운산 자락이 감싸 안은 곳, 숱한 사연들이 켜켜이 쌓인 낙엽들만큼 부려져 있는 그 길, 가을 청평사 그곳은 늘 내 가슴에 화인으로 남겨져 있다.

약력

▲ '시와 의식' 등단(1991년)
▲ 대한문학상, 광산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광주문인협회 이사(현)
▲ 광주문인협회 수필분과 위원장(현)
▲ 저서: '지금도 그곳에는'

평설

소묘란 님의 수필 '가을 청평사'에서의 서술자는 청평사를 찾아 길을 떠난다. 긴 세월 고요가 흐르는 산사는 '산사'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듯 청량하다. 서술자에게 가을의 산사, 청평사는 특히 청량하면서도 맑은 곳이다. 청평사 연못에 잠긴 달을 보며 고요해진다. 서술자는 물비늘처럼 일렁이는 달빛에 마음의 집을 짓고 잠시 쉬었다 간다. 여행은 이렇듯 세상에서 떠밀려 온 아픔들을 다독거려 준다. 버거웠던 삶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새의 날갯짓처럼 비상하게 한다. 이 수필은 나침반을 잃고 방향을 상실한 어느 한 전설을 배치해 놓으면서, 작은 깨달음을 심어 놓고 있어, 읽는 재미가 좋다. 서술자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타면, 삶의 의욕이 옅어지고 삶이 무얼까 궁금해져, 길을 떠난다. 설렘의 청평사 가는 길, 춘천에서 내려 소양호 뱃길을 건너 선착장에 내려, 오색으로 물든 숲길을 걷다가 만난 영지, 거기 전설과 만나 속삭이다가, 회전문을 지난다. 거기서 전설 속 상사뱀의 비애도 만난다. 사랑은 일방적인 집착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가을은 아픔을 삭여가며 찬란함을 과시하는 계절, 이때 그리워하는 순간만이라도 가슴 온전히 따뜻하게 하는 사랑을 간직한 채 여행을 떠나자고 한다. 애잔한 사랑은 묻어두고, 편안한 사랑을 노래하며 여행을 하자고 한다. 그 방향으로 잡으며, 가을 청평사 여행을 가슴에 화인으로 새겨 놓는다. 잔잔한 사색의 흐름이 시처럼 펼쳐져 있어, 독자를 행복하게 한다. 인생길에 산사를 찾는 추억을 보태고, 이를 수필로 음미해 보는 작가의 모습이 무척 정겹다.

평설=박덕은 문학평론가

▲문학박사, 전남대 교수 역임
▲중앙일보 신춘문예당선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